

# 대학교 무용학과 교과과정 내 다문화 무용 교과목 개발에 관한 연구\*,\*\*

박 정 선\*\*\*

I. 들어가는 말	무용 교과목 개발
II. 미국과 한국의 다문화주의 개념과 다문화 무용교육	IV. 나오는 말
III. 대학 무용 전공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참고문헌
	Abstract

## I. 들어가는 말

한국사회는 국내로 유입되는 국제결혼 및 외국인 노동근로자 등에 의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sup>1)</sup> 이에 대한 다문화주의를 포섭하고자 하는 한국정부의 노력은 지속되어지고 있고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sup>2)</sup> 교육 분야에서는 다문화요소를 포함·통합시키려는 많은 노력이 있는 반면, 한국의 고등교육 교육과정에서의 다문화 무용 교육 프로그램 혹은 교과목 개발을 위한 노력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 무용 전공생들을 위한 다문화 무용교육 교과목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5년도에 약 890,000의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에 거주한 것으로 집계하였고, 2020년까지 약 100만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sup>3)</sup> 이는 앞으로도 다문화 아동들의 고등교육 진입 또한 증가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대학교의 무용전공학생 중 타문화권 출신의 학생 (주로 중국유학생)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sup>4)</sup> 이에 한국의 대학 무용학과 교육과정안에 '타자'의 문화들(the cultures of the 'other')을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기초로 연구가 시작되었다. 무용 전문가 혹은

\* 2017년 박정선의 미국 템플대학교(Temple University) 무용학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수정·보완함

\*\* 본 논문은 한국무용예술학회 제22차 학술발표회 '무용예술에서의 창의성'에서 발제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중앙대학교 강사, jsp349@gmail.com

- 1) K. Han(2007), The archaeology of the ethnically homogeneous nation-state and multiculturalism in Korea, *Korea Journal* (Winter), pp.8-31.
- 2) 이가영·박진만·김명옥(2012), 교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특성분석과 평가 활용방안 연구, 『입학전형연구』 1, pp. 121-151; 정희자(2012), 사회적 소통을 위한 무용예술교육 현황 및 사례 분석 연구, 『예술교육연구』 10(2), pp.81-98.
- 3) 여성가족부(2016), 연도별 다문화 가정 통계 (2015년 11월 기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742](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742), 2017. 05. 15>.
- 4) Ok Hee Jeong(2015), A Preliminary Research on the Increase of Chinese Students in Dance Departments in South Korea, 『대한무용학회지』 73(3), pp.193-224.

무용 교육자가 될 대학 무용 전공생들이 다문화 혹은 문화 다양성에 관한 내용과 이슈들에 대하여 인지하고, 다문화적 역량을 길러내어 졸업 이후 무용교육 현장에서 문화적 ‘다름’에 관한 적절한 태도를 발달시키고, 사회적 정의를 지향하는 전문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 사회와 같은 사회 변화 양상들을 대학교 무용학과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교과목을 개발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대학무용교육과정 안에서 다문화적 이슈에 관한 민감성을 증진시키고자, 한국의 다문화 무용교육을 이해하고, 다문화 무용교육 교과목을 개발하여 대학 무용학과 교육과정에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미래 무용교육가들이 다문화적 관점으로 사회 문화적 이슈를 인식하고 무용 수업현장에서든 무용교사 혹은 무용전문인으로서 적절한 행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다문화’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 다인종, 2) 소수민족의 문화, 그리고 3) 다양성.<sup>5)</sup>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라는 단어를 한국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다민족 사람들을 지칭하며, ‘다문화 학생’은 이민자 혹은 이민자의 자녀들을 지칭함을 밝힌다.

다문화 무용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나경아·박현정·오유진(2011)의 논문에서는 무용교육이 다문화 학생들에게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연구 하였으며, 손재현·김한아·이성노(2012)는 무용수업이 다문화 학생들의 사회성을 향상시키는데 끼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한 바 있다.<sup>6)</sup>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들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 학생들을 한국사회에 잘 정착시키고자 하는 일환으로 국한될 수 있다. 이는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소수가 아닌 다수의 인식이 변화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용교육 연구는 그 한계가 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는 서예원과 유미희의 연구들이 있었으나, 주로 초등생 혹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며, 대학 무용전공생들을 위한 다문화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sup>7)</sup> 따라서 본 연구가 제안하는 다문화 무용교과목은 대학 무용전공생들이 다문화적인 인식을 향상 시키고 다가오는 혹은 이미 다가온 다문화 시대에 걸맞은 무용가 혹은 무용 교육인으로 준비 될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다문화’라는 단어는 서구에서 유입된 개념이지만 한국사회에 맞게 변형되고 발전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무용분야 안에서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알아보고자 본 논문은 II장을 통해 미국의 다문화주의 개념의 변천과 다문화무용교육의 현황, 그리고 한국의 다문화주의개념과 다문화무용교육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그 차이점을 인식하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III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한국 사회 실정에 맞는 다문화 무용교과목 개발을 베넷(Bennet)의 다문화 교육 이론을 바탕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전개된다.

제한점으로는 무용교육을 말함에 있어 주로 고등교육(higher education)에 주안점을 두고 전개한 점

5) J. Ahn(2012), Transforming Korea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Reception of multiculturalism discourse and its discursive disposition in Korea, *Asian Ethnicity* 13(1), pp.97-109.

6) 나경아·박현정·오유진(2011), 다문화 아동, 청소년들의 무용교육 요구도 조사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지』 21, pp.17-34; 손재현·김한아·이성노(2012), 무용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성 발달, 『우리춤 연구』 18, pp.88-106.

7) 서예원(2014), 초등무용에서의 문화다양성 교육의 가능성,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0(2), pp.13-22; 유미희(2014), 최승희 무용예술의 다문화무용교육표준에 관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51(6), pp.69-86.

이다. 베넷이 말하는 다문화 교육은 인종, 민족, 계급 모두를 아우르고 있으나, 본 연구는 다문화 즉 한국에 입국해오는 타민족의 사람들과 문화에만 초점을 두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이는 한국에 입국하는 다문화 사람들은 주로 동아시아계로서 출신국가나 민족(ethnic)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인종(race)으로 보았을 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 II. 미국과 한국의 다문화주의 개념과 다문화 무용교육

### 1. 미국의 다문화 주의

미국의 다문화주의는 1970년대에 언어, 음식, 전통, 태고 및 문화적 유산과 같은 민족적 가치와 문화의 다양성안에 나타나는 다름을 포용한다는 의미로 등장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문화 다원주의와 연관된 슬로건을 통해 널리 사용되어졌다. 미국의 다문화주의는 세 개의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시민권 운동 전 시대, 1950년부터 1960년대 사이의 시민권 운동 시대, 후기 시민권 운동 시대. 시민적 권리에 관한 법률 (Civil Rights Act)<sup>8)</sup>은 성, 나이, 인종과 관련한 시민권에 영향을 끼쳤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다문화주의 맥락과 더 가까운 이민과 민족성과 같은 이슈들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자 한다.

시민권 운동 전시대에는 인종적 민족적으로 다양한 인구가 인종 차별적 정책들 아래 존재하였다. 예를 들면, 플레시와 퍼거슨 판례(*Plessy v. Ferguson*) (1896)에 대한 결과로 ‘구분되지만 평등’하다는 개념이 성립되면서 법적으로 차별이 합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플레시와 퍼거슨의 판례는 인종과 출신 민족에 따른 차별을 걸어오는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은 채 법적으로 덮었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sup>9)</sup> 1950년대와 1960년에 일어난 시민권 운동은 이러한 평등의 원칙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였다.<sup>10)</sup> 1954년에는 브라운 대 교육 위원회에 대한 대법원 판례(*Brown v. Board of Education*)는 공립학교 내에서 인종 차별의 합법화를 종식시켰다. 이 브라운 대 교육 위원회 판례를 통해 많은 흑인 학생들이 공립과 사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 승낙을 받을 수 있었다.<sup>11)</sup> 하지만 이는 사실상 법적인 승리일 뿐, 이 법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다.

1964년 시민적 권리에 관한 법이 제정된 것은 시민권 운동이 얻은 큰 성공중 하나로 인종차별 금지 원칙들이 공공기관이나 학교마다 세워지게 되었고, 특히 이민과 시민권에 영향을 끼쳤다. 결과적으로 이시기에 수많은 남미계,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이민자와 같은 수많은 비유럽계 이민자들이 미국에 유입되었다.<sup>12)</sup> 이러한 문화 다양성을 향한 인구적 변화는 1960년대 중반동안 비유럽계 이민자들을 제한했던 인종 및 출신국 차별로 사용되어졌던 이민법의 해방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sup>13)</sup> 1960년대 초기에 ‘중족학’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이는 몇 개의 소수민족의 자긍심을 고양 시키기 위한 의도

8) 미국의 Civil Rights Act는 1964년에 제정된 미 연방법으로 인종(피부색), 출신국가,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미국의 다문화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9) Kim(2014), p.403.

10) Ibid.

11) G. Jay(2011), *What is multiculturalism?*(Milwaukee, WI: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https://pantherfile.uwm.edu/gjay/www/Multicult/whatismc.pdf>>.

12) Kim(2014), p.404.

13) G. Jay(2011), p.2.

로 나타났다. 1960년 후반에는 몇 개의 민족들 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미국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지기 시작했다. ‘다문화 교육’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 발전되어 다문화주의의 개념은 1980년대 동안 널리 인식되어졌고, 이는 종교, 나이, 성, 사회경제적 위치의 차이를 포용하기 위한 개념이었다.

미국사회에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학자들은 다문화주의의 정의에 대해 논쟁을 한다. 미국에서 다문화주의는 전통적으로 문화, 인종, 민족이 다른 사람들의 ‘용광로’(Melting Pot)의 개념으로 등장했다. 이 개념은 많은 학자와 다문화주의자들에 의해 비난을 받게 되었는데 용광로의 개념은 다양한 사람들을 주류집단 혹은 백인문화에 동화(assimilate)시킴으로 용광로 안에 ‘녹인다’는 것이다.<sup>14)</sup> 문화적응과 동화와 같은 가치를 중요시 하는 용광로의 개념은 후에 학자들에 의해 거절되었다. 용광로 개념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반응으로 ‘비판적 다문화주의(critical multiculturalism)’, ‘문화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 그리고 ‘후기민족성(postethnicity)’와 같은 용어가 1990년대 후반 소개되어졌다.<sup>15)</sup> 다문화주의가 문화의 다양성을 축하하는 동시에 다른 부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한다. Jay는 다문화주의로 인해 야기된 사회 내 힘의 불평등한 분배와 같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 다양성과 다른은 사회의 불균형에 관한 구성에 관해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6)</sup> 즉, 단순히 다양한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 구체적으로 주류집단과 비주류집단 사이의 관계를 지역, 국가, 또는 세계적인 맥락 안에서 발견해야 한다고 말한다.

## 2. 미국의 다문화 무용교육

미국의 무용교육에서 다문화주의를 인식하게 된 것은 꽤 오래전 일이다. 미국무용교육기관(National Dance Education Organization)이 편찬한 연구에 따르면 1980년대에 미국의 무용교육에서 ‘다문화(Multicultural)’라는 용어는 더 이상 국가별 세계 지역별 무용을 지칭하지 않으며 문화적 정체성 및 세계 문화 유산을 뜻한다고 보고했다.<sup>17)</sup> 즉, 더 이상 문화를 각 나라 국가별로 단순히 구분하지 않고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바라는 관점으로 바뀌게 된 것을 의미한다. 2000년에서 2002년 사이에는 더 국제적인 관점과 문화적 춤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었고, 다문화 교육에 관한 담론 또한 무용교육이 주는 미국 내 다른 문화체험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경험이라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sup>18)</sup> 미국의 다문화무용교육과 관련된 명칭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30년대 이전에는 원시무용(primitive dance), 이그조틱 무용(exotic dance), 혹은 포크댄스(folk dance)등의 용어로 불리다가 1930년대 종족무용(ethnic dance)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1980년 후반에 세계무용(world dance)이라는 용어가 나타났

14) Ibid.

15) B. R. Hatton(2011), Reinventing black colleges in postethnic America: The case of Knoxville College, *New Directions for Higher Education* 2011(156), pp.49-64; D. A. Hollinger(1995), *Postethnic America: Beyond Multiculturalism*(New York, NY: Basic Books); D. A. Hollinger(2008), Obama, Blackness, and postethnic America,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54(25), pp.7-10; T. M. Volk(1998), *Music, Education, and Multiculturalism: Foundations and Principles*(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6) G. Jay(1994), Taking multiculturalism personally: Ethnos and ethos in the classroom, *American Literary History* 6(4), p.614.

17) National Dance Education Organization(2010), *Research priorities for dance education: A report to the nation*(MD: Silver Spring).

18) Ibid., p.38.

다.<sup>19)</sup> 1970년대 이전에는 비서구권 무용들을 종종 포크댄스(folk dance)로 불렀고, 다른 비서구권 나라들을 다니며 그 지역의 춤을 배운 개인들이 포크댄스를 미국에 돌아와 가르치는 것이 일반이었다.

맥칼디-브라운(2010)에 의하면, 미국에서 무용이 학과로 처음 개설되었을 때에 서구 교육 철학에 영향을 받아 주로 미국과 독일이 주가 되었던 현대무용과 미국과 유럽의 발레가 주요 교과였다. 하지만 미국 대학이 다양한 문화권과 다인종의 학생들이 입학함에 따라 교수진들도 학생들의 다양성에 상응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무용학과에서는 타문화권 출신의 교수를 고용하거나, 현대무용과 발레가 아닌 타문화권의 무용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sup>20)</sup> 하지만 다양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늘어나는 타문화권 학생들의 입학이나 교수채용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예를 들어 타문화권 학생이 무용과에 들어와 다수의 문화적인 관습과 스타일을 따르도록 요구되어 진다면 다양성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미국 무용교육(특히 고등교육과정)에서는 다인종 혹은 타문화권 사람들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문화 다양성(Cultural diversity) 혹은 문화감응교수법(Cultural relevant pedagogy)과 같은 의미에 대한 담론이 종종 대두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라는 용어 자체가 타문화를 자국 문화로 동화시킨다는 비판을 얻게 되면서 무용계 내에서도 더 이상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의 다원주의(Pluralism), 문화 다양성(Cultural diversity)과 같은 용어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의 템플대학교 무용교육전공 대학원생과 교수는 “Embodying Pluralism(다원주의 구현하기)”라는 제목의 교양과목을 일반 학부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교과목은 미국 사회를 구성하는 인종, 민족, 성 등에 관한 이론과 실재를 배우며, 무용 움직임수업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sup>21)</sup>

### 3. 한국의 다문화주의

한국은 미국과는 다르게 종종 단일민족국가로 여겨져 왔다가, 최근에 급속도로 들어오는 국제 혼인자와 외국인 노동자로 인하여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sup>22)</sup> 한국계 미국인인 하인즈 워드(Hines Ward)는 미국의 미식축구 선수이자 혼혈인이었는데, 그의 한국방문이 혼혈인에 대한 큰 이슈를 일으키게 되면서 다문화주의 증진을 위한 토론이 불붙게 되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수치로 여겨졌던 혼혈인이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sup>23)</sup> 2005년 까지는 다문화, 다문화사회, 다문화 가정, 다문화 교육과 같은 용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정의는 미국에서의 그 정의와 다소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 다양한 집단은 종종 인종적 다양성을 뜻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인종적 다름보다는 민족성 다름을 일컫는다. 이는 한국에 유입되는 다양한 인구가 주로 동아시아 국가, 즉 인종적으로 비슷하지만 민족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Ahn에 따르면,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서구에서 유입되어, 2006년 하인즈

19) N. McCarthy-Brown(2010), *The proof is in the pudding: An examination of three selected dance department curricula and how stated values of cultural diversity are implemented*, Ph.D. dissertation, Temple University, p.37; J. Park(2014), What is World Dance? - Exploring Concepts of World Dance and Implications of Understanding World Dance in Dance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Dance Studies* 53(2), pp.37-56 참조.

20) N. McCarthy-Brown(2010).

21) Temple University 'Embodying Pluralism' syllabus 참조

22) Han(2007); Kim(2008).

23) Ahn(2012), p.104.

워드의 한국방문이후에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같은 해 정부에서 국제결혼 및 외국인을 위한 법이 제정되면서 그 논의가 활발해 졌다.<sup>24)</sup> 예를 들면, 노무현 전대통령은 재직 시절 한국은 단일민족성을 가르치는 것을 멈추고 다문화주의의 원리를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후, 한국 정부는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지원 관련법’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발의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또 다른 지원법으로는 ‘다문화 가정지원법(안)’이 제정되었는데 정부지원금을 비영리단체에게 주어 이민자들에게 한국어 무료 강좌, 무료 통역 서비스, 그리고 무료 이민법 상담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다. 물론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에게는 무상교육을 지원했다. 더 나아가 2008년부터는 교육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 교육부는 새 교과서를 편찬할 때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함께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사를 인식하고 있다고 공표하였다. 그 예로, 교육부는 2008년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 극복’이라는 단원을 도덕교과에 추가하였다. 이것은 매우 획기적인 변화였는데 그 이유는 그 전의 도덕 및 사회교과서에는 한국이 단일민족국가임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sup>25)</sup>

다문화주의와 관련하여 증가하는 연구와 담론들은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부각되어지고 있다. 긍정적인 면은 다문화주의가 공동체의 정체성과 권리를 보존하고 지키는 방법에 초점을 두어 사람들이 한국을 다문화국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한 도덕교과서에 새로 추가된 편견극복하기 단원은 소수 민족에 대한 존중과 인내를 가르친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부의 노력은 진정한 변화를 가지고 오기에는 부족하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다. Han은 한국의 다문화주의 담론은 피상적이고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개념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Kim(2012)도 다문화주의에 관한 담론과 정책이 마련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이러한 노력들을 무시해왔다고 말한다.<sup>26)</sup> 단순히 정책을 세우고 지원대책을 수행하는 것이 한국인의 다문화인을 대하는 태도나 이민자들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지원법들은 다문화가정을 도와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고 실제로 이민자들의 직접적인 참여는 부재인 상태인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주의 개념의 실현은 제도적인 장치로 소수민족을 보호하기 보다는 더 깊이 그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과 태도가 필요하다. 이민자나 다문화가정을 단순히 도움을 주어야할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주류집단과 소수집단의 사회적 계층이 생길 수 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모든 한국인들을 위한 다문화적 의식 향상과 간문화적 역량을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

#### 4. 한국의 다문화 무용교육

역사적으로 한국에 다른 형태의 춤 문화가 유입되어 소개된 기원을 찾는다면 아마 삼국시대 때의 중국과 일본의 문화상호성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혹은 일제식민지 시대 때 러시아 유학생들에 의해 소개되어진 코박춤을 한국에 소개되어진 첫 외국무용으로서 문화의 다양성의 시초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담론보다는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다문화 무용교육’이라고 명시되

24) Ahn(2012).

25) N. H. Kim(2012),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The puzzle of multiculturalism in South Korea, *Citizenship Studies* 16(1), p.105.

26) Ibid.

어진 연구들을 기초로 간략하게 그 개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한국에서 다문화 무용교육이 논의된 것은 2008년부터로 볼 수 있다. 가장 최초의 연구로 이정연의 ‘다문화 사회 속의 초등무용교육’ 논문을 들 수 있는데 이 논문은 7차 교육과정을 분석을 바탕으로 유럽계 국가의 무용은 포함한 반면 필리핀의 전통춤은 포함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sup>27)</sup> 다문화주의에 관한 관점은 다양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무용교육학자들은 무용이 다문화학생들이 한국의 주류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도구임에 동의하고 있다.<sup>28)</sup> 더 나아가 몇몇의 무용학자들은 교사의 다문화 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향상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sup>29)</sup> 지금까지 다문화 무용교육에 관한 담론들을 살펴보면, 주로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용교육 프로그램 이었으며, 한국무용을 소재로 다문화학생들로 하여금 한국문화에 더 익숙해지도록 돕는 역할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다. 이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인식향상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다문화학생들이 아닌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와 춤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대학 무용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민속무용 수업만 있을 뿐, 춤 문화의 다양성, 세계무용, 다문화 무용 같은 과목은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의 대학 무용 교육과정이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이는 미국의 무용교육시스템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 III. 대학 무용 전공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무용 교과목 개발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의 다문화주의 개념과 다문화 무용교육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비록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자체가 서구에서 유입된 것이 사실이나, 그것의 현상이나 적용되어지는 형태는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다문화 무용교육 교과목이 개발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베넷의 다문화 교육 이론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두가지 무용표준 - 2015년 개정 교육 과정 (체육-표현활동)과 2014 학교 문화예술교육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 (무용)-에 나타난 다문화적 요소들을 살펴보고, 한국 다문화 인구 실정을 반영한 다문화 무용 교과목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미래의 무용 전문인 그리고 무용 교육자가 될 대학 무용 전공생들에게 다문화시대에 문화적, 민족적으로 알맞은 감응 능력을 키워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사료된다. 본 교과목을 개발하는데에 세 가지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본 교과목이 현 인구적 상황(인종, 민족, 민족적 특징 등)을 반영할 것, 둘째, 본 교과목의 목적이 문화 다양성, 공정성, 사회정의, 편견과 차별과 같은 이슈들에 대한 다문화적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에 둘 것, 셋째, 본 교과목은 Derman-Sparks가 비판하는 ‘관광적 교육 과정 (tourist curriculum)’이 아닌 한국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타문화에 대한 감상을 다문화적 관점으로 가르치는 데에 주목했다.<sup>30)</sup> 관광적 교육과정은 서로의 다른 문화에 대해 음식, 문화, 전통 의상 등과 같은

27) 이정연(2008), 다문화 사회 속의 초등무용교육: 변화를 위한 모색 -포크댄서(Folk Dance)를 중심으로-, 『한국체육 철학회지』 16(3), pp.181-192.

28) Byeon, J. K. (2012), Dance education in Korea, *The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 Dance*, 83(1), pp.27-31.

29) 최윤영(2010),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 무용교육의 적용 방안 고찰, 『대한무용학회논문집』 63(1), pp.261-282.

30) L. Derman-Sparks & the A. B. C. Task Force(1989), *Anti-bias curriculum: Tools for empowering young children*(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th).

문화에 대해 주로 가르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중국에 대해 배울 때 중국옷을 입고 중국 요리를 만들어 하루만이라도 중국의 문화 풍습을 배워보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Derman-Sparks는 이러한 가르침은 “문화 간의 ‘색다른’ 차이점을 강조하며, 지지하고, 자기와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실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비백인 문화를 단순히 ‘방문하고’ 지배적인 문화만을 반영하는 일상의 교실로 ‘돌아간다’”라고 지적했다.<sup>31)</sup> 이러한 점에서 관광적 교육과정은 다른 문화에 대해 접해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는 있어도 ‘나’와 ‘타인’이라는 점이 더욱 강조되는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교과목에서 지양하였다.

## 1. 베넷의 다문화 교육과정 모델

베넷의 다문화 교육 이론은 뱅크스(Banks)나 슬리터(Sleeter)와 함께 한국의 다문화 교육계에 있어 익히 잘 알려져 있다. 그 예로 장인실·차경희의 연구는 다른 다문화 이론가들 가운데서 주로 베넷을 근거로 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베넷이 이론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개념과 용어들이 필수적인면서도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sup>32)</sup> 또한 그들은 베넷의 이론이 한국의 다문화 교육 연구와도 상통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sup>33)</sup> 베넷의 다문화 교육 이론은 총 4가지 영역을 제시하고 6가지의 교육목적을 제공하는데 이를 베넷의 다문화 교육과정 모델이라고 부른다. 다문화 교육 comprehensive 모델과 관련해서는 뱅크스의 다문화 커리큘럼 개혁을 위한 모델을 포함하여 다양한 커리큘럼 모델들이 제안되어져 왔다. 국내에서는 장인실의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교육 모델(2008)과 문계완·배재정의 문화적 역량 교사 훈련 모델(2011), 그리고 김현정의 아동문학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 교수 및 학습 모델(2013) 등이 있다. 몇가지 모델들은 교사교육 내 다문화적 감각과 간문화적 역량의 발전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 다른 모델들은 커리큘럼 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었고, 베넷의 다문화 교육 모델은 다문화 학생과 주류학생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교사교육 및 커리큘럼 개혁 두가지 모두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베넷의 다문화 교육 이론을 선택한 이유는 커리큘럼 개발이라는 주제로 놓고 보았을 때 커리큘럼 이론의 주요 인물인 타일러(Tyler)와 파이너(Pinar)의 균형을 베넷의 이론에서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타일러는 커리큘럼 개발에 있어 미리 정해진 교육목적에 따라 진행되는 교육을 말하는 반면, 파이너는 개인의 경험의 자연에 대한 탐구에 집중함으로써 타일러가 말하는 ‘미리 정해놓은’ 교육을 부정하였다. 베넷의 이론은 미리 정해진 커리큘럼 우산과 같은 6가지의 교육목적들을 제공한 면에서 타일러와 비슷하지만, 그 각각의 목적들 안에서 학생들의 경험을 이해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직접 고안하고 제공함으로써 파이너가 말하는 교육적 맥락 안에서의 경험을 가능케 한다고 본다. 따라서 저자가 베넷의 이론에 근거하여 제안하는 교과목의 교육목적은 경험과 의미 안에서 균형과 융통성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베넷은 모든 학생들에게 그들의 능력과 타문화를 통해 문화적 다름에 대한 배움, 그들의 문화적 역량의 향상, 사회정의에 대한 참여등과 같은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자 다문

31) Ibid., p.28.

32) 장인실·차경희(2012), 한국 다문화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Bennett이론에 근거하여, 『한국교육학연구』 18(1), pp. 283-302.

33) 앞의 글.



화 교육 모델을 고안하였다. 앞서 언급한 4가지 영역에 기초하여 베넷은 총 6가지의 목적을 제시한다: 다양한 역사적 관점의 발달, 문화적 의식 강화, 간문화적 역량강화, 인종차별, 성차별, 기타 모든 차별이나 편견과의 투쟁, 지구의 현 상태와 전 세계적 역동성에 대한 이해 증진, 사회적 행동기술 형성.<sup>34)</sup> 베넷의 첫 번째 목적인 다양한 역사적 관점의 이해는 과거와 현재 세계각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소수 대표적인 국가들이 아닌 다양한 국가들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주류와 비주류의 관점이 함께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베넷은 특별히 역사적 관점에서 주로 앵글로 서양 유럽인의 (즉 영국 및 서유럽 중심으로 편향된) 편견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5)</sup> 이러한 앵글로 서양 유럽인의 편견은 한국의 다문화사회를 비추어 보았을 때 혼혈 한국인에 대해 차별하는 순혈주의적 편견과 대치해 볼 수 있다.

베넷의 두 번째 목표는 문화적 의식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 목표는 교사와 학생이 자신만의 스타일, 생각, 문화, 행동들이 다른 국가나 민족의 수많은 구성원에 의해 형성된 그것들과 매우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중점을 둔다. 즉 자신들만의 가치나 행동, 스타일만이 보편적이거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목표로는 “공감과 소통”을 강조하는 간문화적 역량의 강화이다. 간문화적 역량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 개인의 의도나 몸짓 등을 통해 나타나는 무의식적 신호들이 다른 사람들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도록 돕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문화적 조건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가정들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다.<sup>36)</sup> 네 번째 베넷의 다문화 교육 모델의 목표는 인종, 성, 그리고 다른 형태의 편견과 차별에 대한 저항하기이며 이는 앞서 언급한 베넷의 4가지 영역 중 사회적 정의 영역과 비슷하다. 베넷은 이 목표에서 기본적인 인간의 유사성과 다른 인종/민족, 성, 그리고 다른 계급의 그룹에 대한 통념과 편견을 지우기를 강조하고 있다.

지구의 현 상태와 전 세계적 역동성에 대한 이해 증진하기는 베넷의 교육 모델의 다섯 번째 목표가 된다. 이 목표는 “지구의 현재 상태와 보편적인 변화 경향, 발전과정을 인식하는 것”을 증진시키는데 있다.<sup>37)</sup> 세계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사건들을 인식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호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진 생태계로서 지구를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하나의 생태계로서의 지구가 신기술 개발 이라던지 어떠한 작은 변화에도 서로 영향을 받고 심각한 변화를 사람들 삶에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점을 인식시킨다. 베넷의 마지막 여섯 번째 목표는 사회적 행동기술 개발이다. 사회적 행동기술은 “지구의 미래와 이니류의 행복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 행동”을 뜻한다.<sup>38)</sup> 이 목표는 소수집단과 주류집단 모두가 변화를 주도하는 협력자가 되고, 글로벌적 책임감을 지닐 수 있도록 돕는데에 그 주안점을 둔다. 끝으로 베넷은 6가지의 목적들이 동일하게 강조될 필요는 없으며, 이를 교육과정에 접목시킬 때에 골고루 편성되도록 하되, “개별 교과목의 특성과 학생의 발달단계적 특성에 가장 적합한 목표를 다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sup>39)</sup>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무용교과목은 무용이 가지는 특성을 대학생이라는 발달단계적 특성과 함께 고려하여 접목시켜 개발시켰다. 6가지 목표들

34) 앞의 책, p.62.

35) 앞의 책, p.63.

36) 앞의 책, p.64.

37) 앞의 책.

38) 앞의 책.

39) 앞의 책, p.65.

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균형잡힌 다문화적 관점을 증진시킬 것이다.

## 2. 무용 표준에서 다문화 관련 내용 분석

베넷의 6가지 목적에 따라 교육부가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 (표현활동)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고시한 2014 학교 문화예술교육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 (무용)과 같은 국내 무용관련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다문화적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 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육-표현활동)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육-표현활동)은 총 4영역으로 나뉜다: 성격,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체육교육의 주 역량은 지식, 기술, 신체적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행동, 그리고 내면화 과정을 포함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 역량은 다시 4가지 영역을 포함시키는데, 이는 건강관리 능력, 신체 수련 능력, 경기 수행 능력, 그리고 신체 표현 능력이다.<sup>40)</sup> 무용은 앞서 언급된 신체 표현 능력에 한 부분을 차지한다. 신체적 표현 역량이라는 뜻은 “신체와 움직임을 매개로 하여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뜻한다.<sup>41)</sup> 체육교과 역량을 소개하면서 신체 표현 능력을 설명할 때, “타인의 신체 표현을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현상이나 사물의 아름다움과 가치,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수용하고 향유할 수 있는 안목을 형성할 수 있다”와 같은 문장들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다.<sup>42)</sup> 이는 움직임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생의 자기표현 능력과 상대방의 표현을 이해하는 공감능력 모두를 발전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이러한 자기 표현 능력과 상대방에 대한 이해 및 수용능력이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크게는 주제중심/STEAM형 교육을 중심으로 개정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무용교과를 나타내는 ‘표현’영역에서 앞서 언급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향유” 시키고자 하는 등의 교육적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말하는 ‘다문화’ 무용교육 개념과 상응한 것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분석 선정의 그 타당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다문화 교육 관련한 내용들은 주로 5-6학년군과 중학교 1-3학년군 교육과정에서 찾아 볼 수 있었는데, 표 1과 표 2는 각 학년별 다문화 교육과 연관된 내용과 개념들을 나열한 것이다. 문화와 관련한 내용 요소로는 5-6학년을 위한 민속 표현 파트와 중학교 1-3학년군을 위한 ‘전통 표현’과 ‘현대 표현’을 예로 들 수 있다. 다문화 교육관점으로 본 교육과정에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몇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본 교육과정은 다양한 문화에 관한 배움을 강조한다. 이는 Derman-Sparks가 비판하는 관광적 교육과정과 흡사하다.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5-6학년군 표현 영역 중 민속표현에서 무용을 통해 나타난 민족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기위한 “세계 여러나라의 다양한 민속 무용을 경험해 보는”활동으로 설명한 부분이 이를 잘 나타낸다.<sup>43)</sup> 다양한 세계 민속 무용을 배우는것에만 초점을 두게 된다면, ‘나’의 문화와 ‘타문화’의 차이점만 인식하게 될 뿐 나와 타인에 관한 소통이나 연관점을 찾거나 발

40)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p.6.

41) 앞의 글.

42) 앞의 글, p.5.

43) 앞의 글, p.25.

전시하기 어렵다. 서예원의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2015개정 교육과정의 소통과 관련된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소통과 연관된 교육내용, 다름에 관한 인식, 간문화적 역량과 같은 교육내용이 교과과정에 포함되어져야 한다.<sup>44)</sup>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표현은 소통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계를 발전시키며,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다양성을 고양시킨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교육과정의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 체계 및 예시들은 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고, 여러 개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과 같이 양적으로 배우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문화 경험을 통한 타인과의 소통, 사회적 문제 인식과 관련한 질적 배움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다양한 민속 무용의 기본 움직임과 대형을 배우는 것이 학생들에게 다른 국가의 문화적 의미를 이해 갖고 온다고 전제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5-6학년군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민속 표현에서는 각 나라의 민속 무용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민속 무용별로 나타나고 있는 기본 움직임, 대형 등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sup>45)</sup> 하지만 베넷의 이론에 따르면 민속 무용의 기본 움직임, 대형을 배우는 것은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베넷에게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다양한 역사적 관점의 발전을 요구하며, 이는 민속 무용을 배우는 것은 춤의 스텝을 배우는 것 이상으로 소수집단과 주류집단의 관점으로부터 전통 민속무용을 접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sup>46)</sup> 셋째, 민속무용과 전통 표현영역에서 나타난 예시들을 살펴볼 때 대한민국 인구의 민족적 다양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15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예시들 중 구스타프 스콜은 스웨덴의 민속춤이고, 마임은 이스라엘의 민속춤이 있다.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이민자들은 중국, 필리핀, 베트남인 것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예시들은 한국의 이민자 실정에 맞는 문화적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더 적절한 민속무용들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적절하게 개정된 학습경험은 학생들이 접하게 되는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과 연결되어지는데 도움을 주며 간문화적 역량을 더욱 풍부하게 할 것이다.

〈표 1〉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5-6학년군 표현영역에 나타난 다문화 무용교육 요소

	5-6학년군
내용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속 표현의 의미</li> <li>○민속 표현의 기본 동작</li> <li>○민속 표현의 구성 방법</li> <li>○개방성</li> </ul>
목 표	<p>[6체04-01]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적인 민속 표현의 종류와 특징을 탐색한다.</p> <p>[6체04-02] 세계 여러 나라 민속 표현의 고유한 특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적합한 기본 동작을 적용한다.</p> <p>[6체04-03] 민속 표현 활동에 포함된 다양한 표현 방법(기본 움직임, 대형, 리듬 등)을 바탕으로 작품을 구성하여 발표하고 이를 감상한다.</p> <p>[6체04-04] 세계 여러 민족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개방적인 마음으로 참여한다.</p>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p>민속 표현에서는 나라별 문화적 특징이 드러나는 무용을 선정하여 민속 무용을 통해 그 나라의 자연 환경, 생활 습관 등에 따라 나타나는 무용의 형태와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p> <p>민속 표현에서는 각 나라의 민속 무용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민속 무용별로</p>

44) 서예원(2014).

45) 2015 개정 교육과정, p.26.

46) Bennett(2011), p.30.

〈표 1〉 계 속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나타나고 있는 기본 움직임, 대형 등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활동 과정에 가급적 음악을 사용하여 음악과 신체 움직임을 조화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특히, 민속 표현에서는 표현 활동을 위해 그 민족의 문화적 특징이 담긴 음악을 듣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문화를 반영하는 리듬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민속 표현과 주제 표현은 수행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특히, 민속 표현은 민속 무용의 수행 과정과 함께 이와 관련된 민족의 역사, 문화, 환경 등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주제 표현은 주제의 선정에서부터 작품 구성 및 발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평가한다. 민속 표현을 평가할 때에는 각각의 민속 표현이 가지고 있는 기본 동작, 대형 등의 수행뿐만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지를 함께 평가한다.
신체활동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의 민속 무용(강강술래, 탈춤 등)</li> <li>• 외국의 민속 무용(티니클링, 구스타프 스킨, 마임 등)</li> </ul>

〈표 2〉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중학교 1-3학년군 표현영역에 나타난 다문화 무용교육 요소

		중학교	
내용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 표현의 역사와 특성</li> <li>○ 전통 표현의 표현 동작과 원리</li> <li>○ 전통 표현의 수행</li> <li>○ 공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 표현의 역사와 특성</li> <li>○ 현대 표현의 표현 동작과 원리</li> <li>○ 현대 표현의 수행과 창작</li> <li>○ 비판적 사고</li> </ul>	
목 표	<p>전통 표현</p> <p>[9체04-05] 전통 표현의 역사와 특성을 이해하고, 표현 유형, 인물, 기록, 사건 등을 감상하고 분석한다. [9체04-06] 전통 표현의 동작과 원리를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표현한다. [9체04-07] 전통 표현의 특성과 원리가 반영된 작품을 발표하며, 작품에 나타난 표현 요소와 방법을 감상하고 평가한다. [9체04-08] 전통 표현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한다.</p> <p>현대 표현</p> <p>[9체04-09] 현대 표현의 역사와 특성을 이해하고, 표현 유형, 인물, 기록, 사건 등을 감상하고 분석한다. [9체04-10] 현대 표현의 동작과 원리를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표현한다. [9체04-11] 현대 표현의 특성과 원리가 반영된 작품을 구성하고 발표하며, 작품에 나타난 표현 요소와 방법을 감상하고 평가한다. [9체04-12] 현대 표현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표현 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비교하고 평가한다.</p>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p>전통 표현</p> <p>전통 표현은 전통을 존중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전통 표현 움직임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작품을 발표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p> <p>현대 표현</p> <p>현대 표현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형화된 표현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신체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과 타인의 창작 작품을 비판적으로 감상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p>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p>전통 표현</p> <p>전통 표현에서는 다양한 전통 표현에 담긴 역사와 특성을 이해하고 전통 표현의 특성과 원리가 적용된 작품을 구성하여 발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p> <p>현대 표현</p> <p>현대 표현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현대 표현의 동작과 원리를 통해 표현하고, 자신 및 타인의 작품을 비교·평가하며 감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p>		
신체활동 예시	<p>전통 표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의 전통무용, 외국의 전통무용 등</li> </ul> <p>현대 표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무용, 댄스스포츠, 라인댄스, 재즈댄스, 힙합댄스 등</li> </ul>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전통 문화와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지만 신체 표현을 통한 가치와는 구체적으로 연관을 짓고 있지 않다. 한국의 민속무용과 외국 민속무용과 같은 예시들을 볼 때 문화적 다양성과의 연관성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의 민속무용을 다른 동아시아계 민속무용과 비교를 한다던지 각각의 내용들의 연결성이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의 무용에 관한 지식을 단순히 축적시키는 것이 아닌 다양한 문화를 더 폭넓은 관점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과목에는 이러한 문화 간의 연관성을 통한 타문화 무용배우기를 내포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 나. 2014 학교 문화예술교육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 (무용)

2014 학교 문화예술교육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무용) (이하 2014 개발연구)은 5가지 수준별로 구성되었다: 1-2학년, 3-4학년, 5-6학년, 중학교·고등학교 7-12학년. 2014 개발연구를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교사들을 위한 구체적인 수업 계획안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한 2014 개발연구는 무용 교육자들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체육의 한 영역으로서의 무용이 아닌 무용교과만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2015 개정과는 차이가 있다. 2014 개발연구의 주안점은 Smith Autard의 미드웨이 모델(Midway model)과 McCutcheon의 코너스톤 모델 (Cornerstone model)과 같은 무용교육 이론적 시스템에 기초한 무용교육모델과 내용의 개발에 있다.<sup>47)</sup> 2014 개발연구의 목적은 무용 리터러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무용 리터러시(Dance Literacy)란, 무용을 이해하는 능력과 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는 능력을 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sup>48)</sup>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무용 리터러시란 학생들이 경험, 탐구, 그리고 확장을 통해 춤을 말하고, 듣고, 읽는 종합적 능력을 말한다. 무용 리터러시 모델에 기초하여 2014 개발연구는 4가지 영역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실행(춤추기)’, ‘창작(춤만들기)’, ‘감상(춤읽기)’, ‘소통(춤나누기)’

문화적 다양성 혹은 다문화 교육과 관련한 요소들을 살펴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매우 흡사하다. 이는 2014 개발연구가 바탕으로 한 연구분석이 국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되어져있어 국가 교육과정의 영향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면, 국가 교육과정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속 무용 마임, 덴마크의 민속 무용인 에이스 오브 다이아몬드 등은 2014 개발연구에서 무용 수업 예시에서 그대로 사용되어진다. 표 3은 2014 개발연구에서 나타난 다문화 교육과 연관된 요소들을 나열한 것이다. 2014 개발연구는 초등학생 수준에서 총 5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예술통합(1-2학년), 무용 탐색, 무용 창작, 한국 민속무용, 외국 민속무용. 중·고등학생 수준에서는 무용 탐색, 무용 창작, 무용 감상, 한국 민속무용, 외국 민속무용으로 나뉘며, 무용감상이라는 영역이 추가되었다.

<표 3> 2014 학교 문화예술교육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 (무용)에 나타난 다문화 교육과 연관된 학습 주제

	1-2 학년	3-4학년	5-6학년	7-12학년
예술통합 (1-2학년)	X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7) 2014 학교 문화예술교육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p.vii.

48) 앞의 책, p.13.

〈표 3〉 계 속

	1-2 학년	3-4학년	5-6학년	7-12학년
무용 탐색	해당 없음	한국무용(궁중 무용과 민속무용) 서양 무용(발레와 현대무용) 대중 무용(재즈, 탭, 스포츠 댄스)	한국 민속무용 서양 민속무용 동양 민속무용	궁중 무용과 민속무용의 비교(한국과 외국)
무용 창작	해당 없음	×	×	×
한국 민속무용	해당 없음	한국 전통 음악(아리랑) 옹해아춤 뱃노래춤 풍년가춤	강강술래 소고춤 탈춤	허튼춤 강강술래 탈춤
외국 민속무용	해당 없음	Finding global village friends Penguin Dance -동유럽, Birdy Dance-네덜란드, Pata pata -나이지리아, Cowboy Charleston -미국, Gustaf's Skoal-스웨덴, Progressive barn dance -영국, Jenka- 핀란드, and Spain Gypsy Dance -스페인	미주 대륙(Flip Flop Mixer, Ziggy, Merry Christmas Polka-미국) 유럽 대륙 (To Tur- 덴마크, Ace of Diamond - 덴마크, Das Fenster-독일, Troika-러시아) 아시아 대륙 (Mayim-이스라엘)	미주대륙(Friendship mixer, Heel & Toe Polka, Giddy Up, Play Ground in My Mind-미국) 유럽대륙(Circassian Circle-영국, Zigeuner Polka-독일, Cicerenella-이탈리아, Lo Brisa-pe-프랑스) 오세아니아와 아시아 대륙 (Hinech Ma Tov-이스라엘, Waves of Bondi-호주)
무용 감상하기 (7-12학년)	해당 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문화·예술적 관점으로 감상하기(무용과 의상, 음악, 고전음악, 무용의 재창조) 역사·철학적 관점으로 감상하기(무용과 생활양식, 지구공동체, 철학, 사회)
대중 무용	해당 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왈츠, 폴카, 차차차, 힙합, 콘트라 댄스, 서클 댄스, 라인 댄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슷하게 2014 개발연구가 채택한 외국 민속무용들은 대부분 서양국가들의 것으로 이또한 한국의 민족적 인구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민속무용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과 같은 우리나라 다수의 이민자 집단의 민속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과 오스트리아의 민속무용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민속무용으로 소개될 뿐 다수의 이민자들을 대표하는 국가들은 없었다. 또한, 대중 무용의 정의가 애매모호하여, 민속무용이 종종 대중무용과 융합되어 나타난다. 예를들면, 3-4학년 '무용 탐색' 영역에서 대중무용으로 재즈, 스포츠댄스, 탭댄스를 설명한 반면, 중·고등학생 수준에서는 왈츠, 폴카, 차차차, 힙합, 콘트라 댄스, 서클댄스, 라인댄스가 대중무용으로 포함되어졌다. 왈츠나 폴카 등은 외국 민속무용에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불일치는 무용교사와 학생들에게 대중무용의 의미에 관해서 혼돈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개발연구에서 다문화 무용교육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교과목에 다문화 무용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무용 수업 예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중·고등학교 7-12학년 영역에서 ‘무용감상’ 영역의 한 수업예시인데, 이슬람의 문화를 소개하며 다문화주의와 이슬람 문화에 관한 이해를 도모시키는 무용 활동을 나타내고 있다.<sup>49)</sup> DV8무용단의 "Can we talk about this?"라는 작품을 보여주며, 소수문화와 종교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다문화주의 정책에 관한 질문을 던지게끔 돕는다. 작품을 보고나서 여러 가지 주제로 표현의 자유와 타문화의 갈등에 대해 토론하고 주요 키워드를 가지고 그룹으로 무용창작활동으로 이끈다. DV8의 작품은 인종차별, 성차별, 그리고 다른 형태의 편견과 차별에 관한 부당성을 어떻게 무용작품을 통해 표현하는가에 대해 보여줌으로서 베넷이 말한 문화적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과 그 의미를 나란히 한다. 따라서 DV8의 "Can we talk about this"의 작품을 이용하여 대학생 수준에 맞게 변형하여 본 교과목에 접목시켰다.

### 3. 다문화 무용교육 교과목 개발 및 제안

본 교과목은 다문화 무용 교육의 기초 단계의 수준으로 대학생 2-3학년을 대상으로 고안되었다. 매년 증가하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민족의 학생들은 모든 무용가와 무용 교육자들로 하여금 문화적 다양성과 무용과 무용교육의 실용적 접목에 관한 이해를 가져야함을 요구한다. 본 교과목의 목적은 한국의 문화적 다양성의ダイ나믹을 이해하는 것이다. 인종/민족, 문화 다양성과 현상에 관한 주요 이슈들이 다뤄진다. 본 교과목은 문화적 다양성과 간문화적 역량과 같은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며 학생들만의 교수법 실제 방안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적 활동을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학생들의 기존에 지닌 가정과 편견들을 도전시키고 다양성 인식을 강화시키도록 다문화적 관점을 가지고 정체성, 문화적 다양성, 공감, 글로벌 시민의식과 같은 이슈들을 제시한다.

매주 무용 이론과 움직임 실습을 함께 병행하며, 동아시아의 공통점을 찾는 것부터 개인과 그룹무용을 만드는 것까지 어떻게 무용가와 무용교육자들이 타인과 타문화 무용의 가치, 신념,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다양한 방법과 관점을 다루게 된다. 본 교과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그들의 관점에 관하여 도전하고, 자신들을 표현하며, 타문화와 무용에 공감하고, 사회정의를 위한 도구로서의 무용을 사용하도록 권장될 것이다.

#### 가. 교과 목표 및 학습목표

본 교과목은 베넷의 이론의 근거하여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관점 개발과, 춤 만들기 과정을 통한 문화적 의식과 간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되었다. 따라서 본 교과목이 제시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 무용 교육 교과목을 통해 무용전공 대학생들은 평등 교수법과 사회정의를 이해하고, 학생들의 다문화적 역량을 무용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베넷의 6가지 목적 중에서 주요 단어와 개념을 채택하여 본 교과목의 목표와 학습목표를 개발하는데 사용하였다. <표 4>는 본 다문화 무용 교육 교과목에 주요 개념과 학습목표에 관해 나열한 것이다.

49) 2014 학교 문화예술교육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 p.495.

〈표 4〉 대학 무용전공인을 위한 다문화 무용교육 교과목에 대한 주제 및 학습목표

베넷의 6가지 목표	다문화 무용교육 교과목의 학습목표	다문화 무용교육 교과목의 주요 개념	학습활동 예시
다양한 역사적 관점의 발달	무용의 다양한 역사적·문화적 관점을 발전시킨다	무용에서의 문화적 가치, 문화 정체성, 역사적 관점.	춘앵전 (한국, 중국, 일본 궁중무용) 사자춤 (한국, 중국, 일본)
문화적 의식 강화	‘나’와 ‘타인’ 사이의 다른점을 인식하고 가치를 깨달음으로 문화적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다.	자아 정체성과 그룹 정체성. 문화 다양성 인식	“Who am I” 무용 (개인 활동)
간문화적 역량강화	바디랭귀지와 신체 표현, 그리고 다른 문화배경의 전통 춤 배우기를 통해 간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다.	공감, 커뮤니케이션, 신체언어의 의미 이해	아리랑과 조선족의 무용극, 장백총 동아시아 무용
인종차별, 성차별, 기타 모든 차별이나 편견과의 투쟁	인종차별, 성차별, 그리고 다른형태의 편견과 차별의부당성을 무용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반편견, 평등, 사회정의, 인권, 순혈과 혼혈	DV8의 ‘Can we talk about this?’ 무용 감상과 “사회정의 무용” (그룹 창작)
지구의 현 상태와 전 세계적 역동성에 대한 이해 증진	지구의 현상태와 글로벌적 다이내믹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무용창작의 주제로 사용 할 수 있다.	글로벌 시민의식,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평화, 지구환경	에코댄스
사회적 행동기술 형성	무용가 무용교육자로서 사회적 행동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모든학생을 위한 교육, 실천, 협동, 다양성	무용철학 에세이

## 나. 교과 구성

다음은 각 학습목표별 학습 경험 선정 및 조직 구성을 설명한다.

### 1) 학생들은 무용의 다양한 역사적·문화적 관점을 발전시킬 수 있다.

소수집단과 주류집단의 관점 모두의 인식을 발전시키므로써, 본 교과는 학생들이 문화와 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한국의 전통무용을 동아시아인의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하고, 역사적 영향과 공통점을 각 동아시아 나라의 문화에서 찾도록 지시한다. 예를 들면, 교수자는 한국의 전통 궁중 무용인 춘앵전이 중국과 일본에도 존재함을 설명하고 각 나라의 춘앵전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일본의 춘앵전을 예를 들면, 중국에서 영향을 받아 중국의 춘앵전과 비슷한 양상을 띠지만, 한국의 춘앵전은 중국에 영향을 받기는 하였으나, 한국 문화만의 특징을 살려 독특한 춘앵전으로 다른 양상을 띄게 된다.<sup>50)</sup>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은 학생들의 역사적 문화적 관점이 자민족 중심에서 문화 상호적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돕는다.

50) 이미연(2015), 초등교육에서의 민족무용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한, 중, 일 〈춘앵전〉을 예로 들어-, 『민족무용』 19, pp.97-118.



2) 학생들은 ‘나’와 ‘타인’ 사이의 다른점을 인식하고 가치를 깨달음으로 문화적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다.

본 교과는 문화적 의식은 먼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시작됨을 강조한다. 학생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중요성의 이해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학생의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포함시켜 나아가도록 돕는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이해는 다름에 대한 존중의식을 증대시킬 것이다. 이와 관련한 학습 활동으로서, 학생은 자신의 가족의 역사와 같은 문화적 배경과 경험에 관해 글쓰기를 통해 묘사하게 된다. 이러한 글쓰기 과정은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집약시키기 위해 학습 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밴 매넨 (van Manen) 학자는 글쓰기란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하여 가르치고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아는지 가르친다고 하였다.<sup>51)</sup> 나 자신과 가족에 대한 글쓰기는 학생들로 하여금 무엇을 알고 있으며, 어떻게 그들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지 가르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에게 본인의 정체성과 경험을 오고가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학생들이 쓴 글을 기초로 각 학생들은 짧은 개인 솔로 무용을 창작하게 된다. 방식은 자유이지만 지도자와 서로 상의하는 것은 필수이다. 개인의 글과 솔로 춤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각 개인의 배경과 경험의 다양성과 다름을 인식하게 되고, 춤을 통한 자신의 표현은 학생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의 춤을 듣는 법을 배운다는 점에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다 하겠다.

3) 학생들은 바디랭귀지와 신체 표현, 그리고 다른 문화배경의 전통 춤 배우기를 통해 간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다.

간문화적 역량이란 상대방의 의식중에 나타난 커뮤니케이션 (언어, 표시, 몸짓), 무의식적 사인 (바디랭귀지와 같은), 그리고 문화적 다른 관습들과 같은 것을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sup>52)</sup> 이를 무용학습에 접목 시키기 위해, 교수자는 두가지 작품을 소개한다: 한국의 민요를 대표하는 아리랑과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중국 조선족 무용극을 대표하는 장백총(장바이 산의 정신). 아리랑은 일제치하의 기억과 잃어버림에 대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고, 장백총은 조선족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조선족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민자 그룹이자 한국과 긴 역사를 함께하는 그룹이기도 하다. 주로 일제강점기 (1910-1945)때 중국 북동쪽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조선족으로 부른다.

무용극 장백총은 중국의 다민족 사회주의 지역의 속한 사람으로서 한국의 비주류의 집단적 역사를 묘사한다.<sup>53)</sup> 엄해경(Hae-Kyung Um)은 장백총은 조선족의 열망과 정체성을 변증법적으로 표현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조선족들의 춤과 그들의 고향의 춤 사이에서 조선족 예술가에 의해 만들어진 미학적 다름은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그들의 문화적 혼종성을 정의하기위해 한국 전통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한다.<sup>54)</sup> 한국의 특정한 역사적 기간의 디아스포라의 기억을 나타내는 아리랑과

51) M. van Manen(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New York,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p.127.

52) Bennett(2011), p.324.

53) H. K. Um(2005), The dialectics of politics and aesthetics in the Chinese Korean dance drama, the spirit of Changbai Mountain, *Asian Ethnicity* 6(3), p.203.

조선족 커뮤니티의 역사를 설명하는 장백총을 함께 두고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은 한국인의 역사적 어려웠던 시기와 조선족의 아픔의 시기를 동시에 배우고 타문화에 대한 공감능력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학생들이 평소 특별히 조선족에게 가졌던 가졌던 감정이나 편견이 바뀔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학생들은 인도, 필리핀, 베트남, 중국, 일본과 같은 타국가의 전통 춤과 그들의 독특한 제스처, 관습, 혹은 스타일을 배우게 된다. 이는 학생들에게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에 관해 지닌 문화적 가정의 자기 인식을 고양시키도록 돕는다. 특강으로 국내 거주하는 타문화권 나라의 예술인을 초청하여 그들의 전통 춤과 무용가로서의 삶의 경험에 듣는 시간을 가진다. 학생들은 춤을 배우고, 그들의 삶에 경청하고 본 수업에 대한 느낌을 간략히 써서 내게 된다. 이와 같은 타문화권의 춤에 대한 실제 경험은 다양성과 공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불러 올 수 있다.

4) 학생들은 인종차별, 성차별, 그리고 다른형태의 편견과 차별의 부당성을 무용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본 교과는 반편견 교육에 집중하여 한국의 소수민족 그룹에 대한 오해와 차별을 줄이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인종차별, 성차별, 그리고 다른 형태의 편견과 차별의 부당성을 무용을 통해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DV8의 “Can we talk about this”라는 작품을 ‘사회적 정의의 무용’이라는 과제의 샘플로서 보여준다. 감상 후 학생들은 그룹을 지어 그들만의 ‘사회적 정의의 무용’을 창작하게 된다. 그룹활동으로는 먼저 감상한 작품을 통해 얻게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서로 나누고, 그룹별 창작을 위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나타내기 위한 안무적 접근방법에 대해 논한다. 본 수업활동을 위해 학생들에게 한국의 순혈주의 편견과 관련된 읽기 과제를 미리 주고, 읽은 내용을 통해 발견한 자신의 편견과 차별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짧은 독후감을 쓰게 한다. 그룹별로 학생들은 오해와 편견에 관한 이슈와 문제점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실제 반인종차별주의자로 상상하며 ‘사회적 정의의 무용’을 각 그룹의 주제에 맞춰 창작하게 한다. 2014 개발 연구에 나타난 수업계획안과 비슷하게 DV8의 작품을 보고 다문화 사회안에서 표현의 자유와 다른 문화들 간에 갈등에 대해서도 논하도록 돕는다.

5) 학생들은 지구의 현상태와 글로벌적ダイ나믹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무용창작의 주제로 사용할 수 있다.

환경오염, 전쟁, 가난과 같은 글로벌 다이내믹의 현 상태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학생들에게 세계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문화·사회적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글로벌 시민으로서, 무용가로서, 무용교육자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보도록 한다. 학생들은 또한 글로벌 이슈를 주제로 사용하는 무용작품에 대하여 조사해보고, 발표하고, 각 작품들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다.

무용학습활동으로는 학생들에게 ‘에코댄스’를 국가, 문화, 자연과 인간사이의 하모니를 추구하는 춤의 예시로서 소개한다. ‘에코댄스’는 무용교육자 김오레지니아에 의해 발전된 것으로, 생태계의 위기를 극

54) Ibid., p.221.

복하기위한 실천으로 에코댄스라는 개념을 고안해 내었다.<sup>55)</sup> 에코라는 개념은 생명력, 다양성과 같은 개념을 예술성, 사회성과 결합하여 설명한다는 점에서 다문화 무용교육과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 다양성과 관련하여, 에코댄스는 개인성, 독창성, 기원, 하모니와 같은 개념을 강조한다. 오레지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다양성은 다양한 다른 개인들을 의미하며, 춤에서는 각 개인의 자기표현과 춤의 독창성의 결합을 의미한다. 즉, 각 개인의 독창적인 자기표현의 움직임이 모여 다양성을 나타내며 각 개인들이 커뮤니티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에코댄스인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각 개인의 즉흥적 자기표현의 움직임을 다른 학생들과 함께 동시 다발적으로 만들어 보고, 각 개인의 춤들이 모여 어떠한 커뮤니티의 춤을 나타내는지 감상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춤이 지닌 개별적 독창적 움직임이 어떠한 조화를 이루는지 몸소 느끼고,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며, 더 나아가 글로벌 이슈에 관한 내용을 접목시켜 그들의 작품 소재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돕는다.

6) 학생들은 무용가 무용교육자로서 사회적 행동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본 교과목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한 여섯 번째 목표는 학생들이 지구의 미래를 위협하는 주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인지, 태도, 및 행동을 내포한 사회적 행동 기술을 이해하고 무용가 혹은 무용교육자의 역할에 맞게 발전시키는 데에 있다.<sup>56)</sup> 또한 학생들은 베넷의 6가지 다문화 교육 목적을 읽고 자신의 문화적 관점과 교육 실용방안을 학생들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경험, 그리고 본 교과목을 통해 배운 내용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신념을 반영하는 교육철학 에세이를 작성하면서 검토하게 된다. 본 목표를 통해 전문 무용가 혹은 무용교육자로서 학생들이 문화 개혁 조력자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구체적인 학습활동으로는, 한 학기 동안 배우고 경험한 것에 대하여 글을 쓰고, 다문화적 내용과 연결 지어 자기 자신의 문화적 관점과 교육 실용방안에 대해 조사하여 본다.

다음에 <표 5>는 본 교과목의 주차별 강의진행을 나열한 것이다.

<표 5> 다문화 무용교육 교과목 주차별 강의 계획안

주차별	내 용	과 제
1주차	수업 개요 및 강의계획안 검토	
2주차	다문화 교육이란 무엇인가?	베넷의 다문화교육 자료 읽기
3주차	무용 안에서 다양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관점	
4주차	정체성 관점	벤 매넨의책 4장 읽기
5주차	문화적 의식: “Who am I” 무용	“Who am I” 무용 레포트 제출
6주차	“Who am I” 무용 발표	
7주차	반편견 무용	
8주차	중간고사	
9주차	한국의 소수민족 무용	
10주차	동아시아 무용 탐구하기 - 특강	

55) 오레지나 (2010), 에코댄스의 개념, 『모드니 예술』3, pp.51-60.

56) Bennett(2011), p.325.

〈표 5〉 계 속

주차별	내 용	과 제
11주차	에코댄스	
12주차	“사회적 정의 무용” 주제 탐색	
13주차	전문 무용가&무용교육자로서의 사회적 행동 기술	
14주차	“사회적 정의 무용” 그룹별 활동	사회적 정의 무용에 관한 레포트 제출
15주차	“사회적 정의 무용” 발표	
16주차	기말고사	교육 철학 에세이 제출

#### 다. 교과 평가

본 교과는 움직임 표현, 독후감, 개별활동, 그룹활동과 같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한다. 아래와 같은 구성을 기초로 학생평가가 이루어진다.

- 출석 및 참여도: 25%

교수자는 학생의 출석 및 수업 토론 및 그룹활동, 그리고 준비성에 대한 참여도를 기초로 평가한다. 특히 간단한 움직임 활동을 위해 편안한 복장을 준비할 것을 요구한다.

- 저널: 20%

a. 모든 수업 직후 간단한 배운 점, 느낀 점에 대해 작성

b. 제공된 읽기 과제에 대한 간단한 독후감 작성

- 개별 발표(“Who am I” 무용): 15%

2페이지 이내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한 에세이 쓰기. 쓴 글을 바탕으로 솔로 무용 만들기. 무용발표의 형태나 스타일은 자유. 작품길이는 총 5분 이내로 제한.

- 그룹 발표(“사회적 정의 무용”)– 동료평가로 이루어짐: 15%

“사회적 정의 무용” 창작과정에 대하여 작성. 각 구성원의 간략한 느낀 점 작성. 총 5장을 넘지 않으며, 무용발표는 7분 이내로 제한.

- 교육 철학 에세이: 25%

2-3 페이지 내로 본 수업을 통해 배운 점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느낀 점과 생각을 나타내는 교육 철학을 작성. 교육 철학 에세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

a. 본 수업을 통해 배우게 된 다문화 교수 접근법

b. 무용가 혹은 교육자로서 나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

c. 다양한 문화와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단계 혹은 계획

## IV. 나오는 말

지금까지 본 논문은 미국과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무용교육을 살펴보고 한국 실정에 맞는 대학

무용전공인을 위한 다문화 무용교육 교과목에 대한 필요성과 실제 계획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미국은 시민권 운동을 기점으로 지금까지도 인종차별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활발히 논의 중이다. 또한 문화의 다양성을 환영하면서도 ‘용광로’의 개념인 문화 동화주의를 야기시킨다는 비판을 받게 된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는 문화 다양성, 문화 다원주의와 같은 용어로 대체되었다. 반면 한국의 다문화주의의 개념은 서구에서 유입되어 하인즈 워드의 혼혈계 한국인의 방문으로 급속도로 이슈화 되었고, 국제결혼 및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이 세워지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 정책이 국제 결혼에 주로 치중되어 있고, 법안의 전제가 다문화인이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겨 그들이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학자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한편 한국의 다문화 무용교육은 2008년부터 꾸준히 논의되어져 왔으며, 한국무용을 다문화배경의 학습자에게 가르치는 무용 프로그램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다문화 인식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들도 많았다. 또한 최근에는 다문화배경을 지닌 학습자가 아닌 모든 학습자를 다문화 무용교육의 주체로 포함시키는 연구들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문화 무용교육이란 베넷의 이론에 근거하면 다양한 춤문화를 배움으로서 타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것 그 이상이다.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관점을 타민족의 춤문화를 새롭게 재조명하여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또한, 자신의 문화적 성장배경을 되돌아보고 타인의 배경을 춤을 통해 알아감으로서 자기정체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타인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워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사용되어지는 무용교육기준들을 살펴보았는데, 다양성, 타문화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으나, 그 예시나 수업계획안은 한국의 실제 인구적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다문화 무용교육 교과목은 한국의 다수의 소수민족들을 반영하여, 서양국가에 치중하지 않고, 동아시아 특히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일본 등을 중심으로 무용학습활동을 고안하였다. 타문화와 자문화의 특징을 비교하고 역사적 연관점을 배우는 과정에서 자문화의 우월의식이나 타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줄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는 공감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타문화의 관습, 행동, 제스처 등의 의미를 공유하고 공감할 때 더욱 깊이있는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한다.

한국은 더 이상 다문화 학생만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아닌 모든 학생들이 새로 직면한 다문화 한국사회에 적응하도록 교육받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 무용교육은 한국의 실제 인구의 민족 다양성을 반영하고, 자기 정체성 보존과 타인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내고, 자문화 우월의식이나 타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줄일 수 있는 다문화적 관점 강화와 간문화적 역량을 고양시켜, 실제 현장에서 마주치게 될 다문화적 이슈들을 인식하고 적절히 행동할 수 있는 무용전문 교육인으로 양성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다문화 무용교육 교과목은 대학 무용전공생들이 실제 무용·무용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문화적 역량을 키워내고 무용전문인 또는 무용교육자로서 이미 다가온 다문화 사회에 준비되어지는데 돕는다. 향후 본 교과목에 대한 모의적용을 통한 질적연구 및 다문화 무용교육 교과목의 평가 개발 등의 후속연구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 참고문헌

- Christine, I. Bennett (2007).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김옥순 외(역). 서울: 학지사, 2009.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세종: 교육부.
- 2014 학교 문화예술교육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Derman-Sparks, L. & the A. B. C. Task Force (1989). *Anti-bias Curriculum: Tools for Empowering Young Children*.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th.
- Hollinger, D. A. (1995). *Postethnic America: Beyond Multiculturalism*. New York, NY: Basic Books.
- National Dance Education Organization(2010). *Research priorities for dance education: A report to the nation*. MD: Silver Spring.
-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New York,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Volk, T. M. (1998). *Music, Education, and Multiculturalism: Foundations and Principl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cCarthy-Brown, N. (2010). The proof is in the pudding: An examination of three selected dance department curricula and how stated values of cultural diversity are implemented. Ph.D. dissertation. Temple University, Philadelphia, PA.
- 나경아·박현정·오유진(2011). 다문화 아동, 청소년들의 무용교육 요구도 조사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지』 21: 17-34.
- 서예원(2014). 초등무용에서의 문화다양성 교육의 가능성.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0(2): 13-22.
- 손재현·김한아·이성노(2012). 무용프로그램 참여에 따른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성 발달. 『우리춤 연구』, 18: 88-106.
- 오레지나(2010). 에코댄스의 개념. 『모드니 예술』, 3: 51-60.
- 유미희(2014). 최승희 무용예술의 다문화무용교육표준에 관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51(6): 69-86.
- 이가영·박진만·김명옥(2012). 고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특성분석과 평가 활용방안 연구. 『입학전형연구』, 1: 121-151.
- 이미연(2015). 초등교육에서의 민족무용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한, 중, 일 <춘앵전>을 예로 들어-. 『민족무용』, 19: 97-118.
- 이정연(2008). 다문화 사회 속의 초등무용교육: 변화를 위한 모색 -포크댄서(Folk Dance)를 중심으로-. 『한국체육철학회지』, 16(3): 181-192.
- 장인실·차경희(2012). 한국 다문화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Bennett이론에 근거하여. 『한국교육학연구』, 18(1): 283-302.
- 정희자(2012). 사회적 소통을 위한 무용예술교육 현황 및 사례 분석 연구. 『예술교육연구』, 10(2): 81-98.
- 최윤영(2010).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 무용교육의 적용 방안 고찰. 『대한무용학회논문집』, 63(1):

261-282.

- Ahn, J. (2012). Transforming Korea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Reception of multiculturalism discourse and its discursive disposition in Korea. *Asian Ethnicity*, 13(1): 97-109.
- Byeon, J. K. (2012). Dance education in Korea. *The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 Dance*, 83(1): 27-31.
- Han, G. S. (2007). Multicultural Korea: Celebration or challenge of multiethnic shift in contemporary Korea? *Korea Journal*, 47(4): 32-63.
- Han, K. (2007). The archaeology of the ethnically homogeneous nation-state and multiculturalism in Korea. *Korea Journal*, (Winter): 8-31.
- Hatton, B. R. (2011). Reinventing black colleges in postethnic America: The case of Knoxville College. *New Directions for Higher Education*, 2011(156): 49-64.
- Hollinger, D. A. (2008). Obama, blackness, and postethnic America.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54(25): 7-10.
- Jay, G. (1994). Taking multiculturalism personally: Ethnos and ethos in the classroom. *American Literary History*, 6(4): 613-632.
- Jeong, O. H. (2015). A Preliminary Research on the Increase of Chinese Students in Dance Departments in South Korea, 『대한무용학회지』, 73(3): 193-224.
- Kim, N. H. (2012).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The puzzle of multiculturalism in South Korea. *Citizenship Studies*, 16(1): 103-117.
- Park, J. S. (2014). What is World Dance? - Exploring Concepts of World Dance and Implications of Understanding World Dance in Dance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Dance Studies*, 53(2): 37-56
- Um, H. K. (2005). The dialectics of politics and aesthetics in the Chinese Korean dance drama, the spirit of Changbai Mountain. *Asian Ethnicity*, 6(3): 203-222.
- 여성가족부(2016). 연도별 다문화 가정 통계 (2015년 11월 기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742](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742), 2017. 5. 15>.
- Jay, G. (2011). What is Multiculturalism?. Milwaukee, WI: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https://pantherfile.uwm.edu/gjay/www/Multicult/whatismc.pdf>, 2017. 2. 19>.

논문투고일 2017. 5. 15

심사일 2017. 6. 2

심사완료일 2017. 6. 13

## A Study on a Culturally and Ethnically Inclusive Curriculum Design in Korean Dance Higher Education

**Park, Jeong Sun**

Lecturer, Choong-Ang University

Korea is undergoing a rapid transformation into a multiethnic society because of the influx of migrants. While many efforts have been made to integrate multiculturalism into education, multicultural dance education programs at undergraduate institutions are, if there is any, underdeveloped. This study proposes a multicultural dance education program to be considered for implementation as a required course for dance education students at undergraduate institutions in the near futur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velop a university dance education course that reflects the increasing diversity of the Korean population and should be a required course for education students. The intention in designing this curriculum is to help future dance teachers to be culturally and ethnically responsive to the student population in their classes.

**Keywords:** Multicultural dance education(다문화 무용교육), Cultural diversity(문화 다양성), Bennet's multicultural education model(베넷의 다문화 교육 모델), Dance curriculum(무용 교육과정), University dance education program(대학 무용 교육 프로그램)